

일본어 레벨 자기 평가표 (일본어학부의 레벨별 수강 타학과 학생용)

			A 1	A 2	B 1	B 2
이 해 력	듣 기	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 히라가나·카타가나 를 읽을 수 없는 학생은, 레벨 테스트를 수강하지 않고 A1을 수강해 주세요.	분명하고,천천히 말해주면나,가족,바로주변 의구체적인것들에관한 익숙한말이나아주기본적인 표현을알아들을수있다.	(아주 기본적인 개인이나 가족의 정보, 쇼핑, 근처, 일 등) 직접 자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. 짧고 분명하며 간단한 메시지와 방송의 요점을 들을 수 있다.	일, 학교, 오락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소재에 대해 명료하고 표준적인 대화라면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. 말하는 방식이 비교적 느리고 또렷하다면 시사문제나 개인적 혹은 업무상의 이슈에 대해서도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.	긴 대화나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.또, 만약 화제가 어느 정도 친밀한 범위라면, 논의의 흐름이 복잡해도 이해할 수 있다. 대부분의 텔레비전 뉴스나 시사문제의 프로그램도 알 수 있다. 표준 영화라면 대부분 이해할 만하다.
	읽 기		예를 들어 게시물이나 포스터, 카탈로그 안에 잘 알고 있는 이름, 단어, 단순한 글을 이해할 수 있다.	짧고 간단한 텍스트라면 이해할 수 있다. 광고나 내용 소개의 팜플렛, 메뉴, 예정표와 같은 것 중에서 일상의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꺼낼 수 있다. 쉽고 짧은 개인적인 편지는 이해할 수 있다.	매우 흔한 일상 언어나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언어로 쓰인 텍스트라면 이해할 수 있다. 일어난 일, 감정, 희망이 표현된 사신을 이해할 수 있다.	필자의 자세나 시점이 나와 있는 현대의 문제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. 현대 문학의 산문은 읽을 수 있다.

말하기	대화하기		상대방이 천천히 말하고, 반복하거나 바꿔 말하고,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. 직접 필요하거나 친근한 주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라면 듣거나 대답할 수 있다.	단순한 일상에서 정보를 직접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친밀한 화제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. 일반적으로 대화를 계속할 만한 이해력은 없지만, 짧은 사교적인 대화는 할 수 있다.	해당 언어권 여행 중에 가장 발생하기 쉬운 대부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가족이나 취미, 일, 여행, 최근에 있었던 일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준비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.	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으며 모국어 화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. 친밀한 문맥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다.
	표현		어디에 살고 있는지, 또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, 간단한 어구나 문장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.	가족, 주변사람, 거주조건, 학력, 직장경력을 간단한 언어로 일련의 어구나 글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.	간단한 방법으로 어구를 연결해 자신의 경험과 사건, 꿈과 희망, 야심 등을 말할 수 있다. 의견 및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. 이야기를 할 수 있고, 책이나 영화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으며, 그에 대한 감상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.	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한, 폭넓은 주제에 대해 명료하고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. 시사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가능성의 장단점을 제시하며 자신의 견해를 설명할 수 있다.
	쓰기	쓰기	신년사 등 짧고 간단한 엽서를 쓸 수 있다. 예를 들어 호텔 숙박부에 이름, 국적,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기입할 수 있다.	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의 일이라면 간단하게 짧은 메모나 메시지를 쓸 수 있다. 짧은 개인적인 편지라면 쓸 수 있다: 예를 들어 예약 등.	친근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관련 텍스트를 쓸 수 있다. 사신으로 경험과 인상을 쓸 수 있다.	관심 있는 분야 내라면 다양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명료하고 상세한 설명문을 쓸 수 있다. 에세이나 리포트로 정보를 전달하고 일정한 시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이유를 쓸 수 있다. 편지에 사건이나 체험에 대해 자신에게 의의를 중심으로 쓸 수 있다.